



오 동 호

신경과 의사회 정보통신이사

개업이란 전문직 자영업자가 되는 길입니다. 의사라는 전문지식인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과정입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것이 부의 획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시장에서 경쟁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과 전문의가 개업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개업가가 어려워질수록 봉직의 생활은 어려워지고 경제적 독립은 전문가로서의 자유를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신경과학이 방대하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에서 블루오션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의료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도에 대한 관심과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과학적 기술에 대한 시장의 가치는 1차의료기관과 3차의료기관이 매우 다릅니다.

여기에는 자본적인 요소가 작용합니다. 투자의 리스크 그리고 의료시장내의 경쟁을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가의 장비와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지향하는 3차병원과 원장1인의 노동력에 의존해야 하는 동네의원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신경과 의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경과 클리닉에서 흔히 접하는 증상과 중요한 검사를 선정하였습니다.

1. 두통, 어지럼증, 손발저림마비, 치매, 뇌졸중(뇌혈관질환), 안면마비, 손떨림(파킨슨씨병), 수면장애, 뇌전증(간질), 신경통, 보행장애
2. 신경근전도검사, 뇌혈류검사, 뇌파검사, 치매인지기능검사, 경동맥초음파, 수면다원검사(수면무호흡증검사), 자율신경검사, MRI & CT

동네의원 개업의가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질환과 검사와 3차병원 봉직의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다른 것은 진료환경이 그만큼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의료시장은 불안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독점적 권한을 이용하여 의료시장을 사회주의화 하고 있으며 자유시장범위에 속하는 비급여를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전국민 건강보험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을 찾을 만큼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증대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적인 변수도 작용하고 의료시장 내부적인 변수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가 다른 업종에 비하여 수요탄력성이 적다고 하지만 예방이나 건강증진 분야를 포함함으로써 더욱 경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다른 생산직종과는 달리 양적인 증대에 한계가 있습니다. 질적인 문제와 그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의학자인 원장이 자기자본을 투자의 리스크를 경영하여야 하는 의료 시장에 있어서 경제, 사회, 제도적 변수를 인지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동업자가 될 수도 있고 의사회 전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병원은 사무장병원을 막기 위하여 금지되었습니다만 회원들간의 유대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의료시장의 변수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생각하겠노라...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6번째 내용입니다.

신경과 의사회가 있습니다.

Dongho Oh, MD

Mirae Neuromedicine Clinic, 415 Myunmok-ro, Jungang-gu, Seoul 131-816, Korea

Tel: +82-2-438-7582 Fax: +82-2-438-7576

E-mail: cybd@naver.com